

黨 정체성 확보·내부 통합 급선무

■ 민주당 '손학규號' 전망과 과제

대통합민주당은 10일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얼굴로 올 4월 총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손 전 지사 입장에서는 한나라당 탈당 1년도 안돼 개혁·진보 진영 최대 정당인 신당의 대표가 된 것이다.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과 함께 손 전 지사의 대표 선출은 수십년 동안 계속돼온 '민주·반민주' 국내 정치구도의 붕괴를 의미한다는 지적이 일 반적이다. 국민이 이명박보다는 실용을 선택해 정권을 교체했고 신당도 이런 국민의 변화 욕구를 읽고 새 선장으로 손 전 지사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당 추스르는 것이 급선무=하지만 손 대표의 앞 길이 순탄하지 않은 상황이다. 4월 총선 전망이 밝지 않고 당내에 한나라당 전력을 분체삼은 일부 세력이 남아있어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특히 정체성을 문제 삼아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이날 탈당했고 친노그룹과 충청권 의원들의 탈당이 예고되는 등 세력 이탈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선 손 대표는 당내 각 정파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당 분위가 추스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 같은 세력의 재편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직 조진노 등 신당 내의 상당수 인사들은 과거의 이념을 기준으로 정치의 틀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당을 함께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 색깔은=손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4월 총선에서 선전하는 것이다. 선전의

기준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60~70석 획득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를 위해 손 대표는 새로운 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5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딛고 새로운 개혁·진보 진영의 모습을 그려야 하는 것이다.

손 대표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새로운 진보'라는 화두를 던졌다.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경제를 살리는 일, 일자리를 살리는 일에는 아낌없이 지원하고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 국민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새로운 진보적인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 땅에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새 정부와의 관계에서 경제를 살리는 일 등에는 적극 협조하되 그 성향의 혜택과 몫을 국민이 나눠가지는 방향으로 견제하고



대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대표 수락연설을 한 뒤 중앙위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과거처럼 이념을 위주로 '민주·반민주'의 대결 구도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인적 쇄신 단행=총선 선전을 위해서는 인적 쇄신도 중요하다. 손 대표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수락 연설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국민의 목소리는 반성과 쇄신과 변화"라고 말했다. 과거 반성의 틀 위에서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을 예고한 것이다. 이와 관련, 손

대표의 최측근은 "손 대표는 당내에서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존재"라며 "당을 살리기 위해 과감한 인적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당 관계자는 "손 대표가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구시대적 인물과 정치·정책적 역량이 떨어지는 국회의원을 대거 교체하는 등 신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확실한다"고 기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해찬 탈당...親盧 이탈 신호탄?

“孫체제는 좌표 잃은 정당”...유시민도 탈당 할 듯

김원기·한명숙씨는 불출마 가닥

대통합민주당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10일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중앙위원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오늘 대통합민주당을 떠난다"면서 "신당을 떠나자니 만감이 교차하지만 제가 어떤 어려움에도 지키고자 했던 인간의 존엄성, 성숙한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공동체의 가치를 법률이 아닌 정신과 정체성에 있는 것이기에 더 이상 신당에 남아있을 수가 없다"고 탈당의사를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어 "여야 주요 정당의 대표를 모두 한나라당 출신이 맡게 된 정치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로 인해 민주화 이후 저희들을 일관되게 지지해 주셨던 분들이 느낄 혼란과 허탈감에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 정치 인생은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그리고 한나라당과의 오랜 맞섬일 수밖에 없고 그 길이 행복한 국민, 좋은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 여전히 확신하고 있다"며 "제가 신당을 떠나는 이유는 결코 손학규 개인이 대표가 됐기 때문

이 아니다. 손 대표가 오랫동안 정당생활을 했던 신한국당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지향이 결코 제가 추구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민 여러분은 저에게 분에 넘치도록 많은 것을 허락해주셨고 정치인으로서는뿐만 아니라 개인 이해찬으로서 더 이상 무슨 목적이 있겠느냐"며 "감히 바라건대 국민 여러분의 실망과 질책을 모두 제 어깨에 짊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신당내 친노그룹의 좌장격인 이 전 총리가 탈당함에 따라 친노성향 의원들의 후속 탈당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신당은 손학규 대표 체제 출범 직후부터 분화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전 총리의 핵심 측근은 "유시민의 원이 탈당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고 김형주 이화영 의원 등도 탈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고심 중이며 윤호중 의원도 고민이 많은 것 같다"며 "이광재 의원과 안희정씨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한명숙 전 총리도 탈당은 하지 않되, 총선에 불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4·9 총선 광주·전남 누가 뛰나

6 전남 서부권

‘중량급’ 대거 몰려 관심 집중

목표

목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정치적 고향답게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전윤철 감사원장 등 거물급 인사들의 출마설이 제기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이상열 대통합민주당 후보가 성실한 의정생활을 바탕으로 수성에 나서고 있으나 거물급 인사들의 잇단 출마설로 지역 분위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말 특별사면을 통해 정치권에 복귀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목표 출마 선언을 통해 정치적 재기에 나서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였던 무안·신안을 DJ의 차남인 김홍업 의원에 물려줬다는 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표 출마

이상열 수성...한화갑·박지원·전윤철 출마설 김대중·정영식·민영삼씨 등도 민심잡기 나서

가 그리 무리한 행보는 아니라는 계산이다. 목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신안 출신이라는 점에서 신안 우이도가 고향인 한 전 대표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있다. 그러나 당직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은데다 나이 문제도 걸리는 부분이다. 여기에 DJ의 '복심'인 박지원 전 비서실장도 이번 총선에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동교동 선배인 한 전 대표의 출마 선언에 고민스러운 분위기가 전해진다. 전윤철 감사원장도 복병으로 꼽히고 있다. 전 원장이 총선에 출마한다면 목표가 가장 유력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총선 출마에 대한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전 원장이 범여권의 비례대표로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총선에서 이상열 의원에겐 고배를 마셨던 김대중 전 목표시의원과 정영식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도 목표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또 민영삼 정동영 대선 후보 공보특보, 배종호 전 KBS 기자 등 정치 신인들의 도전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우승 하세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이젠 DJ 넘자” 여론 흐름 주목

무안·신안

무안·신안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림자에 가려 거물급 도전자의 발길이 뜸한 상황이다. DJ의 차남인 김홍업 의원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나타났듯이 이제는 DJ를 넘어서자는 지역 여론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여기에 국회에 등원한 김홍업

보선서 김홍업에 패한 이재현씨 설욕 베풀 이윤석·안희석·김호산씨도 표발같이 분주

의원도 내성적인 성격 탓인지 그다지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이지 못했다. 이윤석 전 전남도의회 의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역 표심을 다지고 있고 지난 보궐선거에서 고배

를 마셨던 이재현 전 군수도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김호산 창조한국당 사무처장도 젊음·패기와 성실성을 바탕으로 지역 민심을 다지고 있다. 한나라당 후보로는 안희석씨가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통장 등 88명 사직...선거원 등록

광주시·전남도는 "선거법상 사퇴 시한인 10일까지 선거운동원으로 뛰기 위해 사직한 사람은 모두 8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에서는 통장 5명, 주민자치위원 50명 등 55명이 사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대 총선 때 광주에서 92명(반장 2명, 주민자치위원 90명·

전체 6천717명 중 1.4%)이 사직한 것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 전남지역도 이장 1명, 반장 10명, 주민자치위원 18명, 향토예비군 소대장 이상급 간부 4명 등 모두 33명이 그만뒀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함께하는 또 하나의 커뮤니티...

2008년 KTF(중국어) 슈퍼마켓 캠페인

www.ktf.com

www.supermarket.ktf.com

www.ktdc.com